



한전공대 기본협약식에서 기념촬영 하는 참석자들.

/연합뉴스

한전공대 부지 28일 최종 확정

광주 3곳, 전남 3곳씩 후보지 신청 예정...한전 심사위 구성 등 절차 착수

광주와 전남이 각각 3곳씩 총 6곳의 한전공대 후보지를 8일 신청을 받는다.

한국전력은 용역사에 후보지 추천절차가 마무리되면 심사위원회 구성을 거쳐 현장실사-평가를 진행, 오는 28일 이전에 부지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국전력은 8일 하루 동안 광주시와 전남도로부터 한전공대 부지 신청서를 최종 제출받겠다고 7일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내부 선정할 각 3곳의 부지에 대한 신청서류를 용역사인 'A.T.Kearney'에 제출한다.

한전은 지난달 19일부터 준비기한을 거쳐 3주 후인 이날 추천부지에 대한 신청서류를 한꺼번에 받기로 했다.

광주에서는 자치구가 추천한 곳과 광주시가 발굴한 곳 등 3곳이 후보 부지로 추천된다.

전남도는 타 시군의 유치 의향이 없어 나주시내 3곳을 추천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추천부지의 면면은 각 지자체가 부동산 투기나 부지선정 경쟁을 고려

해 비공개하기 했다.

추천부지 선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전 측은 용역사를 통해 부지 심사 절차에 착수한다.

용역사는 지자체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부지를 심사할 한전공대 부지 심사위원회 구성에 나선다.

심사위는 위원 명단 유출이나 로비 등을 피하기 위해 부지 심사일정 직전에 비공개 구성할 것으로 전해진다.

심사위원회 구성을 마치면 위원들은 수일에 걸쳐 각 지자체 추천부지 6곳을 현장 실사하고 평가를 진행한다.

현장실사와 평가는 1월 넷째 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나, 공정성을 위해 현장 실사나 평가과정은 공개되지 않는다.

심사위는 부지선정 심사 결과를 담은 서류를 봉인해 한전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발표 시기는 늦어도 오는 28일께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한전 측은 구체적인 발표 방법을 고심 중이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 한전공대 부지를 1월 말까지 지연 없이 선정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부지선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최종용역 결과도 설계 수정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jin2001@

한국전력,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획득

한국전력은 KSR인증원으로부터 'ISO 37001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 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ISO 37001'은 ISO(국제표준화기구)

가 조직 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시스템으로 방지하기 위해 2016년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이다.

KSR인증원은 ISO인증을 수행하는 한국인증지원센터로부터 인정받은 국제적

인 인증기관이다. 한전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지침과 매뉴얼을 제정했다.

또 부패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침을 수립하고 부패리스크 진단-평가 등을 실시

했다.

이정희 한전 상임감사는 "공직사회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반부패 활동이 기관의 신인도를 좌우하고 있다"며 "한전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나주=김동철 기자 dongkk@



"전두환 재판 성실히 임하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2차 공판이 열린 7일 오후 광주지법 앞에서 5월 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두환 재판 불출석에 광주 민심 '부글부글'

"전두환, 더는 관용 베풀어선 안 돼" 규탄 성명 잇따라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두 번 연속 재판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지역 사회 곳곳에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7일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2차 공판 직후 "이번에는 무슨 핑계로 (재판에) 안 나올까 생각했는데 감기를 핑계로 나오지 않았다"며 "역사와 광주 시민에게 못된 짓을 한 전씨는 광주 법정에서 서는 것이 두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본인의 말처럼 자신이 떳떳하다면 비겁하게 도망 다니지 말라"며 "광주 법정에서 당신과 조비오 신부 중 누가 파렴치한인지, 누가 사탄인지 가려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신부는 또 "전씨는 민주주의의 파괴자이자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다"며 "법정에 나와 국민에게 사죄하고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5·18기념재단과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한전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정희 한전 상임감사는 "공직사회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반부패 활동이 기관의 신인도를 좌우하고 있다"며 "한전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나주=김동철 기자 dongkk@

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던 젊은이들 감옥에 가두는 등 80년대를 폭재와 암흑으로 만들었다"며 "여기에 대해서도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며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촉구했다.

광주 청년민중당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씨를 법정에 세우는 것이 상처받은 5월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하고 법의 위상을 높이는 방법"이라며 "부인 이순자씨의 말대로 전씨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면 민주주의의 성자인 광주에서 재판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전남 한반도포럼도 성명을 통해 "5·18 민주시민은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줄곧 요구해 왔다"며 "반합법적인 전두환의 거짓 발언과 행위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광주지법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이 이날 2차 공판에도 불출석하자 구인장을 발부하고 오는 3월 11일 열리는 3차 공판에 강제 출석시키기로 했다.

/김태평 기자 esaca@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지난 한해동안 베풀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己亥年에도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16(역삼동) | TEL : 02-563-8107 FAX : 02-563-9616 | 홈페이지 : www.kgu.or.kr